

김호석을 보고 한강을 읽는다

아침 열매

이승현

강진백운동전시관장



김호석은 화가고 한강은 소설가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큰 산들이다.

두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예술적 성향 일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1월, '수목화가 김호석' 토론회가 열린 광주시 동구 인문 학당에서 (이후 글에서는 작가라는 이름을 뺀다.) 한강을 읽고 김호석을 보게 되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김호석의 '마지막 입술-떡만단 단팻빵'이란 수목화를 조우시킨 자리였다. 두 사람은 스스로 5·18이라는 압도적 고통을 운명으로 느끼면서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산자와 죽은자, 신체와 정신,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부활시키는 작가들의 재능이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영원성을 지닌 명작으로 만들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운동 중에 계엄군에게 희생된 '문재학'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었으나 그 문재학이 김호석이 그린 그림 속에 학생과 동일인인지, 또는 한강의 작품을 읽고 나서 그런 것인지 등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입방아였다. 그날 참석한 김호석은 "그림 속에 교련복을 입고 단팻빵을 반쯤 먹다 총격으로 쓰러진 '학생'은 5·18 기록사진 중에 실제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문재학을 포착해서 그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광주가 흘린 피가 빛이 되지 못해 5·18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자신도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광주에 빛을 진 것도 없고 고향도 아니고 이미 예술적 성취를 이뤄 아쉬울 게 없는 김호석의 발언에 그가 높은 도의(道義)와 지조(志操)를 지닌 선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잊히고 감추고 싶은 역사 속의 망자(亡者)들을 호출하여 행장(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주요 행적을 기록하는 글)과 비문을 쓰고 현재의 사람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불러 넣는 주술사인 이들의 작업은 외려, 이를테면 '계엄'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야만적 압제에도 움츠러거나 몸을 사리지 않는다. 김호석과 한강은 예술, 예술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아름다움과 재미라는 예술의 기능을 넘어 시대정신과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는 작업을 예술의 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닮았다.

5·18을 그만 우려먹은 일부의 비아냥과 폄훼자 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김호석이나 한강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치유하는 작업을 해왔는지 그 선구적 통찰과 실천에 수긍하고 경의(敬意) 하게 되었을 것이다.

김호석은 2023년 김남주와 더불어 '합성지' 주동자로 민주화운동의 핵심이었으면서도 공로를 내세우거나 어떤 과실도 챙기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아가는 이강 선생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전시회를 열고 이강과 김남주 수목 인물화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기증했다.

지난 10월 전남대 5·18 연구소가 주관한 김호석 개인전- '무등의묵(墨): 검은 울음' 전시회가 열렸는데 5·18 당시 방북했던 무명인들의 위패를 그린 작품 '검은 눈물' 등 국가폭력에 저항하다 희생된 사람들은 기리는 수십 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40년도 더 지난 '광주'의 먼지를 털고 끄집어 내서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할 전시회를 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윤석열에 의한 또 하나의 5·18이 잉태되고 있는 것을 눈치라도 챜 것 아닌가 생각되었다.

한강 역시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 제4부 3장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국가와 가해자들이 그토록 밀폐시키고 밀봉하려던 역사적 진실과

트라우마를 담론화함으로써 노벨문학상 수상이란 개인을 넘어 국가적 결실을 맺었다. 노벨 주간인 지난 6일 오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청 건물 외벽에 한강의 사진과 함께 "하얀 것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한글 문장이 떠올랐다. 한강 소설 '흰'에 등장하는 문구다.

대단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이 '흰'을 김호석은 오래전부터 작품의 바탕으로 삼은 듯하다. 채색과 농담을 거의 생략한 채 군더더기는 다 걷어내고 점과 획, 백과 흑만 남긴 그의 그림은 담백하고 장중하다. 맑고 깨끗한 것만이 아닌 강하고 비장한 느낌의 색(色), '흰'에 한강과 김호석의 정신이 배어 있다.

한강은 노벨상 수상자 소장품 기증 행사에서 작은 찾잔을 전달했는데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찾잔 안에 푸르스름한 안쪽을 들여다 보는 일이 자기 생활의 중심이었고 작은 찾잔이 자신을 책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주문 같은 것'이었으며 '삶이 허락하는 한 계속 쓸 것'이라고도 했다. 평범한 시민들이 바라는 평화로운 일상이다.

김호석은 단원 김홍도나 혜원 신윤복을 잇는 이 시대의 거장이지만 시골 전시관에도 애정을 쏟아 최근 백운동 전시관에 '소'와 '자이'라는 작품을 걸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지만 좌절하지 말고 소가 되어 묵묵히 현실의 비참과 고통을 쟁기질하다 보면 환희가 오리라는 것과 자신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근원을 단절해 버리고 자이(自怡)-스스로 즐겁고 자유롭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아 그렸다고 한다. 미치광이들이 벌인 내란에 사람들의 흥분이 최고조 상태다. 혼미한 정국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5·18을 다시 겪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엄습한다.

온 국민이 자유와 민주, 삶의 쟁기질을 김호석이나 한강처럼 멈추지 말았으면 한다.

社說

정부 지원 시급한 여수 석유·화학 산업

수요부진 등으로 위기 처해

전남 핵심 산업 동력인 석유·화학 산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은 17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글로벌 범용제품의 공급 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도 국제 정수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여수시의 2023년 국제 정수는 2021년 대비 40.3%나 감소한 3조 4000억원으로 추락했다. 여수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올해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이는 여수지역경제에 비춰 IMF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는 여수 지역 골목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음식점 폐업 수는 월 평균 29

곳, 올해 8월에는 43.4곳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넘어섰다.

음식점 카드 매출액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작년 8월을 기점으로 장기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여수산단의 불황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올해 7월 기준 여수 지역 가계 대출액 증가는 4.3%로 전국 3.8%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한때 산업 동력인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다행히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업 위기는 정부의 조속한 위기 극복 지원을 통해 극복한 바 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의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지역 내에선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체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다.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위기 극복을 한 만큼, 석유화학 분야 역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당장 정부의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시급해 보인다.

단죄받아 마땅한 정성산의 5·18 거짓 선동

광주시 등 경찰에 고발장 제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18일 광주경찰청에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씨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 재단과 광주시의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인 정씨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극우적 시각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어왔다. '5·18은 김일성의 정신에 입각한 인민 무장봉기'라거나 '5·18에는 북한특수군이 침투되어 전투를 벌였다'는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2019년 5월 18일에는 '광주 인민 봉기는 철저하게 우리 김일성 수령님의 통일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 였다'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공작조가 광주에 이어 대전과 전주로 이동하면서 대둔산에 몸을 숨긴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5·18은 정씨의 주장처럼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인민 폭동'이 아니다. 1980년 시민들의 활동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이를 폭압적으로 진압한 행위는 국헌문란행위다. 법원과 국정원 등도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차례 확인했다. '5·18 당시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의 실체'나 '전라도 5·18 당시 북한기차 2명 광주 침투 취재' 등 정씨의 얘기도 취재원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그의 주장일 뿐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도 지난 8월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면서 5·18 북한특수군 개입설은 허위라고 밝혔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이고 극우적 시각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조차 수차례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거짓 선동을 일삼는 정씨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노리는 지탄받을 짓이다. 경찰은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서 정씨를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분명한 사실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해서는 단죄받아 마땅하다.

서석대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영업·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길 당부드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했던 마지막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우 의장의 발언은 계엄·내란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특수가 사라져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이번 계엄·내란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 1630명 중 88.4%가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중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36%에 달했다. 특히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매출이 1000만원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소상공인도 11.5%나 됐다. 매출액이 감소한 만큼 손님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89.2%는 사업장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연말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61.9%는 경기전망을 '매우 부정적', 28.2%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고물가 속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뒤숭숭한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1년 중 가장 기대감에 부풀 연말연시가 특수는커녕, 쏨파 기로의 시기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정치권과 정부를 비롯 각 자치단체는 탄핵안 가결 이후 연일 한 목소리로 연말 행사와 모임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겨우 예전 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 때를 놓치면 소상공인들은 견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탄핵안 가결로 정국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지금 당장 가족, 지인, 친구들과 송년모임 일정을 잡아 위축된 연말 분위기를 되살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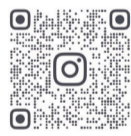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b@jinilbo.com



연말 분위기 되살리기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www.jinilbo.com

m.ji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inilbo.com